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5일 (음력 1월 21일) 월요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

광주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센터에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25억원, 시비 225억원)을 투입해 ▲지질·문화 복합전시관 ▲세계지질공원 전자도서관 ▲세계지질공원 교류의 장 ▲지질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복합센터로서 전 세계 지질공원 운영국과 네트워크

광주시, 전 세계 지질공원 운영국과 네트워크 구축

가사문화권 연계해 광주·전남 관광인프라 확보

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동 장소로 활용한다. 건립 예정지는 광주호수생태원 주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다.

이 지역은 가사문화권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플랫폼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전남 관광인프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력해 국비 확보와 세계지질공원 홍보, 탐방객 유치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해 2012년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학술조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여섯 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이어 2018년 4월 제20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추진과 더불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광주·전남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국회 무용론?

“이게 국회냐 곧 민심의 쓰라림이 물러올 것이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국회로 물러올 수 있다.”

19일 오전 국회의원 접견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9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문 의장은 “국회 가원대표들만의 국회나 이러면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 게(중요한 것)이 아니다. 쓰라림이 물러오면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이날 점심만 “국회가 뭐 하나 한 게 있다. 사법 개혁이 됐다. 국가 기관 개혁이 됐다”라며 “그러니 5·18(평화) 논쟁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의 호통에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열사와 애국투사 의복을 입은 멀티악벽 산악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 불암산 정상에서 열린 3·1절 100주년을 기념 퍼포먼스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땅끝해남 동계 전지훈련 각광

연인원 4만6000여 명 구슬땀

날씨·음식·시설 우수...경제유발효과 34억

땅끝 해남이 겨울동안 전국에서 찾아온 전지훈련팀의 열기가 뜨겁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2018~2019 동계 전지훈련기간 동안 해남에서는 16개 종목에서 307개팀 4900여 명의 선수들이 찾았다.

연인원으로는 4만6000여 명에 이르면서 직·간접적인 경제유발효과만도 34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목도 다양해 골프를 시작으로 축구 150팀 4000여 명을 비롯해 육상 40개팀 500여 명, 펜싱과 검도 각 20개팀 200여 명 등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근대5종, 레슬링, 농구, 배구, 테니스, 야구 등이 망라됐다.

해남이 이처럼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로 각광받는 데는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런 음식, 무엇보다 적극적인 시설확충과 꾸준한 대외 홍보를 통한 수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기존 우슬경기장과 체육관 외에도 3편의 축구전용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해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 펜싱체육관, 우슬트레이닝센터, 탁구장과 전지후 육상실내경기장 등을 차례로 확충했다.

이들 시설들은 우슬경기장을 중심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집약돼 있어 선수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체력훈련은 물론 경기까지 치를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훈련 시설로 꼽히고 있다.

전지훈련 운영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된다.

군은 올 하계 전지훈련에 5종목, 70개팀, 연인원 5500명의 선수 유치를 확정하는 등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대파 4천t · 양파1만 시장격리키로

가격 안정위해 선제 대응

전남도는 월동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총 56억원의 사업비로 겨울대파 4872t, 조생양파 1만340t을 산지 시장 격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가 도비 8억원을 투입하고 주산지 시군, 농협 등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 이뤄진다. 시장 격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평당 겨울대파 5844원, 조생양파 5922원을 보전해준다.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6%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출하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주도로 일부 출하 조절을 하고 있으나 산지의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 가격을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양파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줄었으나 지난해 생산한 저장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가 부진해 장기간 거래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부터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품 조생종 양파의 경우 평당 7000~8000원선에 포진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율도 부진해 햇양파뿐만 아니라 중만생종까지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선제적 조치로 산지 시장 격리에 나선 것이다.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The 청렴하기-면 더 행복해요!

